

판교
판진

板橋 版譜

2025.vol.08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연간 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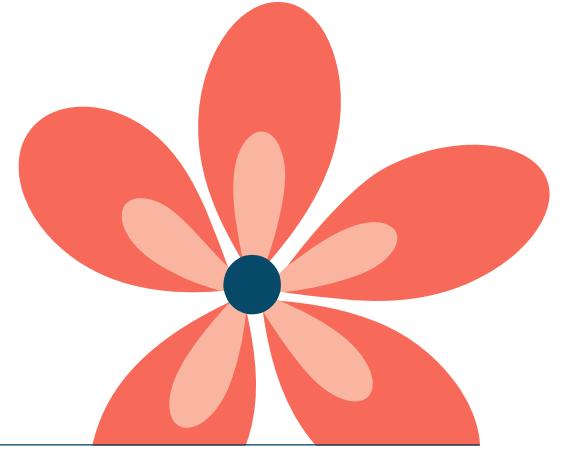
존엄한 삶
가치로운 삶
행복한 지역복지공동체



Pangyo
Senior Welfare
Center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2025년 | 12월발행 | 통권08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99 | 판교노인종합복지관 | Tel. 031.620.2810 Fax. 031.703.5108 www.pangyonoin.or.kr



2025.vol.08

CONTENTS

02 관장스님 말씀

04 오늘, 우리의 순간

- 청소년자원봉사학교
- 뇌똑똑교실
- 마음on

10 손끝으로 만나는 세상

- 보이는라디오
- 스마트 빌리지
- 판교청춘오케스트라
- 노인권익증진(호칭선호도조사)

18 마음과 배움으로 채우다

-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인문학 특강
- 미술관 프로젝트
- 디지털 프로그램(VR)
- 탄소 중립 공예 생활
- 마음에 그림을 그리다

28 함께한 마음

- 2025년 자원봉사자&후원자 명단
- 2025년 후원금품수입·사용내역

통권 제8호 발행처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발행인 일운스님
발행일 2025년 12월 편집인 김수영 진행 김유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99
Tel 031.620.2810 Fax 031.703.5108
홈페이지 www.pangyonoin.or.kr 디자인 디자인공작소
페이스북 www.facebook.com/pangyonoin



인사말씀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을 조용히 돌아보며, 어느덧 2026년을 맞이합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는 스쳐 지나가지만, 그 안에 담긴 기억과 마음은 인연이 되어 오래 남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어르신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이어오며, 저마다의 속도로 의미 있는 날들을 만들어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르신과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일상의 자리에서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이어왔습니다. 미술관 프로젝트를 통해 어르신의 삶과 경험을 다음 세대와 연결하고, 인문학 특강을 통해 배움과 참여가 일상 속에 스며들도록 하였으며, 판교청춘오케스트라와 가을문화축제에서는 어르신들이 무대에 서고 나눔에 참여하며 복지관을 함께 가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교에서는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 하여, 특별하지 않은 일상 속 마음이 곧 삶의 길이라 전합니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평범한 하루가 편안하고 단단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늘 곁을 지켜가겠습니다.

2026년에도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와 인연을 이어가며,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복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새해에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장 **일운** 합장



세대를 잇는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Moment
1

글 기획홍보팀 임성태 사회복지사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의 의미를 배우고, 어르신과의 만남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기획·운영하였습니다. 단순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자원봉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총 3일 과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진행된 청소년자원봉사학교는 총 3일 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첫날에는 오리엔테이션과 보드게임을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지만, 게임이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웃음과 대화가 오갔고, 낯설었던 공간도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이후 활동에 대한 긴장도 한결 누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노인자원봉사단인 ‘글꽃봉사단’과 함께 열쇠고리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르신들로부터 제작 과정을 배우고 직접 만들어본 뒤, 인근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께 열쇠고리를 전달하며 나눔 활동을 실천했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대화 속에서 청소년들은 어르신을 ‘도움의 대상’이 아닌 ‘함께 활동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인자원봉사단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에 청소년들의 반응이 인상 깊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활동하는 어르신 봉사자가 많고, 그 역할 또한 다양하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르신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청소년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줄 몰랐다”며, “오히려 제가 배우는 입장이 된 것 같았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는 포토북을 제작하고 수료식을 진행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진을 정리하며 청소년들은 경로당 방문 장면과 어르신들과 함께 웃던 순간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과 대화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이야기해보니 친근했다”는 소감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청소년자원봉사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활동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자연스럽게 전해주었습니다. 어르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층 부드러워졌고, 세대 간 대화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 만남과 나눔의 기억이 청소년들의 일상 속에서도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아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두뇌활동으로
하루를 깨우는

뇌 똑똑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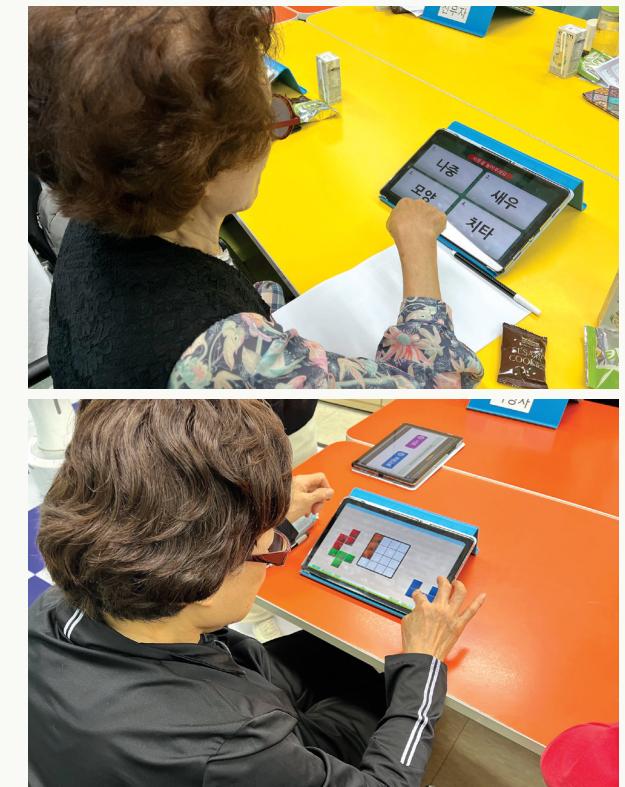
Moment
2

글 지역복지팀 배유진 간호사

올해 진행한 ‘뇌똑똑교실’은 인지훈련 로봇을 중심으로 신체·영양·사회 활동을 결합해 어르신들의 뇌 기능을 다각도로 자극하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게임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대화를 나누며 손을 사용하는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라 어르신들의 반응이 특히 좋았습니다. 치매 예방을 희망하는 복지관 회원 중 우선순위에 따라 10명의 참여자를 선정해 진행했습니다.

수업은 인지훈련 로봇 ‘실벗’과 태블릿 PC를 활용해 뇌 영역별 인지게임, 치매예방 체조, 집중·기억 활동, 소그룹 협동 게임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 매 회마다 활동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해 “몸도 쓰고, 손도 쓰고, 머리도 쓰니 참 좋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인지능력 향상과 우울감 감소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분들이 많았고, 수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은 어르신들의 변화된 태도와 표정입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수업하면서 생활에 활기가 생겼어요. 예전보다 머리를 쓸 일이 많아진 덕분인지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활동이 낯설지 않을까 걱정했던 마음을 덜어주는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AI나 로봇은 나와 먼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어렵지 않고 재미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시도하지 않는 걸 먼저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뿌듯해요.”라고 하시며 새로운 기술을 접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신감을 표현해주셨습니다.



Brain

이 말씀이 인지훈련을 넘어 삶의 활력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올해 뇌똑똑교실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이 새로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작은 변화를 즐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의 일상에 대한 자신감까지 얻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을 돋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풍부한 콘텐츠와 체계적인 구성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경험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되던 날,
프로그램실로 들어오시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낯섦과 기대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 궁금해서 와봤어요.”,
“요즘 마음이 좀… 그래서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변화를 바라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음을 켜다, **마음, On** 프로그램

Moment
3

차 명상을 통해 따뜻한 향을 맡고, 가벼운 건강체조로 어깨를 토닥이다 보니
어색함도 금세 사라졌습니다. 첫 만남임에도 각자의 ‘마음 이야기’가 자연스
럽게 오간 것은 이미 서로에게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 반’의 하루는 늘 “어르신들의 한 주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손주 결
혼식 이야기로 웃음이 오가기도 했고, 허리를 빼끗하셨다는 이야기에 서로
의 안부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무의미한 한 주였다”는 말이 나왔을 때,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미한 게 아니라 무탈한 한 주셨던 거죠.
별일 없던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요.” 그 말 한마디가 방 안의 분위기를 한
층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시간을 의미 있게 바꾸는 것은 어쩌면
이런 작은 공감인지도 모릅니다. 자연 속 활동은 어르신들의 표정과 마음에
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숲 향 가득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호흡 명상을 하
던 날, “마음이 편안해지네요.”라는 말이 들려왔고, 숲길을 걸으며 걷기 명
상을 하던 날에는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로 서로의 마음
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
살아 있는 느낌이 나네요. 참 오랜만이에요.”라고 말씀하신 순간은 오래 기
억에 남습니다.

8주의 시간 동안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처음엔 어
색하던 사이가 어느새 서로 옆자리를 챙겨 앉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다음
주에도 와야지”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인 줄 알
았는데…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참 편하네요.”, “이 시간이 제 삶에 다시 불
을 켜줬어요.”

‘마음, On’은 끝났지만, 어르신들의 마음에 켜진 작은 불빛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빛이 앞으로의 일상도 조용히 따뜻하게 비춰주길 바랍니다.



‘마음, On’은 우울감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을 돌보고,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
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는 ‘상담’이라고 부르기보다,
마음을 다시 켜는 시간이라 생각했습니
다.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의 별칭을 ‘마음
반’으로 직접 정하시던 순간부터 방 안에
는 따뜻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ON-AIR

판교노인 보이는 라디오

World

1

글 사회참여팀 윤태호 사회복지사



2025년 한 해 동안 복지관에서는 어르신의 미디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총 10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실버DJ, 대본 작가, 진행자 등 역할을 맡아 라디오 콘텐츠의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노인 당사자의 시각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지역사회에 전달함으로써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는 주 1~2회 운영되었으며 복지관 소식, 생활정보, 최신 뉴스는 물론 인문학·교양·예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지역사회 이용자들에게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장비를 조작하고 대본을 작성하는 과정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인지 향상, 일상 활력 증진, 자아존중감 향상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청취자 반응 역시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바로 들을 수 있어 편리하다”, “점심시간에 혼자 있을 때 들으면 마음이 안정된다”,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어 재미있다”, “또래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힘이 난다” 등의 의견이 꾸준히 이어지며, 보이는 라디오는 일상 속 친근한 정보채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참여 어르신들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대본 작성, 장비 점검, 회의 준비 등 방송을 위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는 과정은 어르신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는 단순한 미디어 활동을 넘어, 어르신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새로운 역할을 발견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표현하고, 함께 만들며, 지역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interview

DJ 세이지(김삼수) 어르신

“젊었을 때 하던 일과 완전히 달라 처음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이크 앞에 서 보니 제가 이렇게 말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저도 놀랐어요. 청취자분들이 ‘오늘도 잘 들었어요’라고 말할 때마다 하루가 꽉 찬 느낌이 들어요. 늦은 나이에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기분입니다. 또래 어르신들이 ‘목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져요’라고 해주실 때 정말 뿌듯합니다. 이 시간은 서로 가 연결돼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DJ 도문(이성철) 어르신



“라디오는 ‘방송하는 날’보다 준비 과정이 더 즐겁습니다. 대본을 쓰면서 자료를 찾다 보면 몰랐던 정보도 배우게 되고, 장비 조작이 익숙해지면서 스스로 발전한다는 걸 느껴요. 예전에는 집에서 멍하니 TV만 보던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방송 준비해야지’ 하며 하루가 바쁘고 규칙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활동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방송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디지털로 연결되는 건강한 마을, **스마트 빌리지**

복지관은 성남시청과 함께 로봇을 활용한 체조와 게임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돋고, 경로당과 복지관이 보다 활기 있는 지역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빌리지’는 화상 스튜디오와 스마트테이블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 사회참여팀 최 상 사회복지사

01 **스마트테이블**

복지관 로비에서
즐기는
IT 체험존



World
2

02 **화상 스튜디오**

경로당으로
전달되는
비대면 체조 수업



화상 스튜디오는 분당 제5권역(백현동·판교동·운중동) 내 경로당 중 19개소를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웃음치료와 체조 수업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대면 방식이 낯설어 참여가 적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10시에 TV 앞에 모여 몸을 풀며 수업을 기다릴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 명만 참여하던 경로당이 어느새 6~7명으로 늘어난 곳도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마지막 수업 날, “벌써 끝인가요?”, “빨리 내년이 왔으면 좋겠어요.”라고 아쉬움을 전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은 프로그램의 의미를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 비대면 체조 프로그램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모든 경로당에 직접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해, 참여자 수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경로당에도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스마트 빌리지 화상 스튜디오는 어르신들은 일상에서 손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고, 경로당은 이용자 수가 늘어 활기가 더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기술을 매개로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일상과
즐거운 여가를 제공하며, 경로당과 복지관을 잇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관은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스마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음악으로 피어나는 두 번째 청춘 판교청춘오케스트라



interview

송용순(첼로 파트장)

성남아트센터에서 단독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서로 축하하며 자부심이 컷죠. 공연 당일 리허설에서 조명 아래 서 있는 순간, 그동안의 노력이 한꺼번에 밀려오더라고요. 어려웠던 부분이 무대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그 감동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조희영(피아노)

올해는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지휘자님이 새로 오시면서 곡의 깊이가 훨씬 높아졌고, 악보를 파고들며 완성도를 높이려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연습이 이어지면서 ‘우리 음악이 달라졌다’는 걸 단원 모두가 느꼈습니다. 공연을 끝내고 무대 뒤에서 손을 맞잡았을 때, ‘정말 잘해냈다’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무대에 도전하고 성취하는 경험이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대에 선다는 것, 다시 청춘이 되었다는 것”

올해 판교청춘오케스트라는 성남아트센터에서 첫 단독 정기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또 한 번 뜻깊은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연주를 넘어, 단원들이 걸어온 시간과 노력, 그리고 성장이 하나의 서사처럼 녹아든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글 사회참여팀 장민희 사회복지사

Orchestra

준비의 시간, 다시 시작된 ‘성장’

올해 초 오케스트라는 지휘자 공개채용과 단원 오디션이라는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단원들은 서로의 호흡을 맞추며 기본기를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9월에 진행되었던 향상음악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단원들은 이 경험을 통해 “정기연주회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본격적인 합주 과정에서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반복되는 연습 속에서 점차 소리가 하나로 모여갔습니다. 단원들은 음악적 완성도뿐 아니라 팀워크와 연주하는 즐거움까지 한층 더 성장했습니다.

성남아트센터에서의 뜨거운 울림

공연 당일,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 입장한 단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공존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지휘자의 첫 박이 떨어지는 순간, 공연장 특유의 깊은 울림은 단원들에게 또 한 번 집중의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자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의 따뜻한 응원은 단원들의 긴장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특히 주요 레퍼토리를 연주할 때 단원들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고, 매 곡이 끝날 때마다 터져 나오는 큰 박수는 “우리가 정말 이 무대에 서 있구나”라는 벅찬 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나고, 무대로 쏟아지는 박수 속에서 단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안에는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는 뿌듯함과 “내년엔 더 높은 무대에 오를 수 있겠다”는 새로운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청춘이 되는 무대, 그리고 다음 걸음

이번 정기연주회는 단원 각자의 열정이 하나로 모여 만들어낸 값진 성과였습니다. 무대에 선다는 설렘, 함께 성장해가는 보람, 그리고 청춘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순간들이 올해에도 오케스트라를 단단히 성장시켰습니다. 판교청춘오케스트라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음악을 통해 도전하고, 꿈꾸고, 서로 응원하는 소중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깊고 풍성한 음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World
4

존중받는 호칭, 존중받는 어르신 호칭 선호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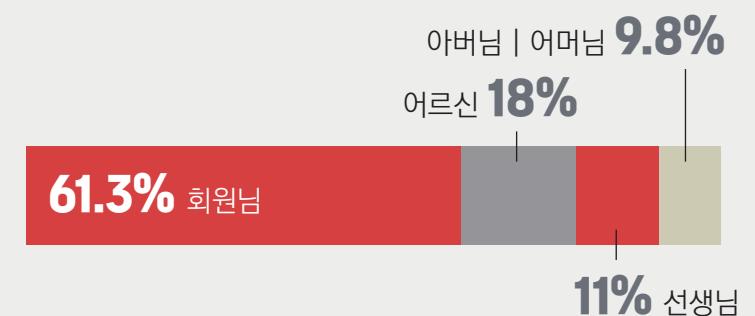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올 초 회원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호칭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인사와 대화 속 호칭이 이용자들의 경험과 분위기를 좌우하는 만큼, 이번 조사는 “서로를 가장 존중하고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표현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노인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캠페인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여, 당사자가 주도하는 존중 문화 확산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글 사회참여팀 장민희 사회복지사



조사 결과,
전체 1,032명 중 633명(61.3%)이
'회원님' 호칭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로비 참여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에서는 QR 코드를 통한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회원들은 “호칭을 깊게 생각해볼 기회였다”, “부담 없는 호칭이 중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다른 이용자들의 선택을 살펴보며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 [오프라인 '회원님' 응답률]
462명 (61.1%) 오프라인 응답자 756명 중
- [온라인 '회원님' 응답률]
171명 (61.9%) 온라인 응답자 276명 중

이 외에도 ‘어르신’(18%), ‘선생님’(11%), ‘아버지/어머님’(9.8%)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선배님’, ‘형제님/자매님’, '(이름)선생님'과 같은 개성 있는 제안도 자유 의견을 통해 제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관은 올해부터 ‘회원님’을 공식 호칭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전화 응대·프로그램 운영 등 복지관 전반에서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으며, 종사자뿐 아니라 노인자원봉사자들도 함께 실천해 존중하는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관은 이용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따뜻하고 존중하는 복지관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인문학 특강

Filling
1

글 교육문화팀 유현우 사회복지사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인문학 특강'은 어르신들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고, 새로운 배움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인문학 주제를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일상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강의는 2월부터 11월까지 월별로 운영되었으며, TK정형외과와 연계해 전문의가 진행하는 건강강좌 4회와 함께 역사·문화·사회 흐름을 주제로 한 인문학 명사 특강 4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의 전에는 포스터, 배너, 복지관 카카오채널을 통해 참여 안내가 이루어졌고, 매 회기마다 약 1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강사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고, 이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인문학 명사 특강은 어르신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신병주 교수와 함께 한 「조선시대 왕과 참모 이야기」를 통해 역사 속 리더십과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박재우 교수의 「다시 보는 고려거란 전쟁」 강의에서는 한반도의 역사적 흐름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자명 교수의 「세계사 속의 동아시아 2차 대전」은 세계사 속에서 우리 역사의 위치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큰 호응을 얻었고, 이혜원 박사의 「2026 대한민국 소비트렌드 전망」 강의는 변

Humanities

화하는 사회 흐름을 이해하며 현재의 삶을 돌아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강을 진행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어르신들이 강의를 통해 배우는 즐거움과 새로운 지식을 얻는 기쁨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주셨다는 점입니다. “내용이 너무 유익했다”, “이런 강의를 들으니 하루가 더 활기차다”, “일상 이야기할 소재가 생겼다”는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었고, **인문학 특강이 어르신들의 하루에 작은 설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인문학 특강은 단순히 강의를 듣는 시간을 넘어, 어르신들께 지적 자극과 정서적 만족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접하며 생각의 폭을 넓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어르신들의 일상에 잔잔한 활력으로 남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2025년 성남시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미술관 프로젝트’는 어르신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노년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더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미술을 감상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작품을 해석하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예술로 채우는 일상, 미술관프로젝트

글 교육문화팀 김형규 사회복지사



Filling
2

참여 어르신들은 미술 작품의 기본 이론 교육을 통해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해석·평가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후 실제 미술관을 탐방하며 도슨트의 역할을 직접 경험해보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어린이집과 연계한 ‘찾아가는 시니어 도슨트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작품을 설명하고, 함께 감상하며 세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작품을 설명할 때 자연스럽게 표정이 밝아지던 장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르신의 설명을 들으며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거나, 호기심 가득한 질문을 이어갈 때 어르신들은 더욱 열정을 담아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예술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미술관 프로젝트는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문화 프로그램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품을

|



해석하고 도슨트 역할을 수행하며 스스로의 역량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여전히 누군가와 지식을 나누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대 간 소통의 즐거움을 느끼며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확신을 얻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번 미술관 프로젝트는 예술을 통한 배움과 표현, 그리고 세대 간 따뜻한 소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참여가 프로그램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었고, 아이들과의 만남은 서로에게 오래 기억될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은 어르신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nterview

원종혜 회원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작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는 것이 참 기쁘다는 걸 느꼈습니다.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아이들이 제가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리며 즐거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번 디지털 프로그램 “VR로 훌쩍! 맛으로 착!”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실제 여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새로운 경험을 즐기실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VR 기기를 활용해 세계 곳곳을 둘러보고, 안내지와 요리 밀키트로 현지의 맛까지 느껴보는 특별한 체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글 맞춤돌봄팀 이연경 사회복지사

VR로 훌쩍! 맛으로 착!

디지털 프로그램

Filling
3



생활지원사는 각 가정을 방문해 VR 고글 착용과 시청을 도왔고, 회기마다 제공된 QR코드를 통해 국내·해외 여행지를 번갈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상 감상 후에는 안내지를 함께 보며 여행지의 주요 장소와 문화를 이야기 나누어 이해를 더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디지털 기기에 걱정을 보이던 어르신들도, 실제 체험 후에는 “평생 못 가볼 곳을 다녀온 기분”이라며 환하게 웃으시거나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표현하셨습니다. 다음 회기를 기다리며 “이번엔 어디로 가나요?”라고 먼저 물어보는 등 기대감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은 VR 기기와 QR코드를 직접 다뤄보며 디지털 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친근감을 얻었으며, 여행 영상을 즐기는 과정에서 정서적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더불어 밀키트 요리는 혼자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웠던 어르신들에게 작은 재미와 성취감을 주어 “내가 이런 것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Digital Program

한 참여 어르신은 이렇게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처음엔 이런 기계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스위스를 여행하는 영상이 너무 생생해서 놀랐습니다. 밀키트도 직접 만들어보니 기분 전환도 되고, 프로그램 있는 날을 기다릴 정도로 즐거웠어요.”

사업을 마무리하며, 이번 프로그램이 어르신들께 새로운 경험을 선물하고,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해 일상에 활력을 더해드릴 수 있었던 점이 무엇보다 의미 깊었습니다. 여행과 요리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복지관이 이어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탄소 공예 프로그램

서로를 잇는 시간

Filling
4

글 맞춤돌봄팀 한문숙 사회복지사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공예를 하는 시간은 제게도 늘 특별한 배움의 순간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탄소 중립 공예 프로그램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활동으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공예를 통해 집중력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회기가 거듭될수록 단순한 공예 프로그램을 넘어, 서로에게 마음을 건네는 소중한 시간으로 깊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월 2회씩 총 12회에 걸쳐 무드등, 티코스터, 캔들홀더 등을 직접 만들어보며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셨습니다. 손에 익지 않은 작업도 있었지만, 재료를 만지고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몰입이 이루어졌고, 그 몰입이 어르신들의 표정에 잔잔한 안정과 즐거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참여 첫날, “평생 일만 하느라 이런 프로그램은 처음이에요. 너무 좋아요.”라고 말씀하셨던 한 어르신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작업에 집중하다 보니 오랜만에 머릿속이 편안해졌다고 하셨고, 완성된 공예품을 바라보며 “내 손으로 만든 게 이렇게 예쁠 줄 몰랐다”며 밝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작은 재료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이 되듯, 어르신들의 마음에도 성취감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서로를 향한 배려와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아파서 참여하지 못한 날이면, 다른 참여자가 그 어르신 뒷의 작품을 만들어 병문안을 가고, 손이 느린 분이 있으면 옆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12회기를 지나면서 어르신들 사이에는 따뜻한 신뢰와 라포가 깊어졌고, 프로그램실 안은 늘 잔잔한 웃음과 대화로 채워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며 자신감을 되찾고,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나누며 관계의 온기를 느끼고,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시간을 경험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탄소 중립 공예 프로그램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작은 성취와 감정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돋는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지지가 되어주시며 변화해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이 프로그램이 **가진 진정한 가치와 필요성을 다시 깊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에 편안함과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을 계속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





‘마음에 그림을 그리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미술 매체를 통해 어르신들이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함께 작업하며 관계를 쌓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정서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넘어,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이야기와 감정을 색과 선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돋고자 총 12회기에 걸쳐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음에 그림을 그리다

Filling
5

글 맞춤돌봄팀 한문숙 사회복지사



어르신들은 격주로 복지관 프로그램실에 모여 데칼코마니, 그림책 만들기, 색채 표현 등 다양한 미술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자리한 날에는 “나이가 드니 이런 건 어렵지 않을까”, “그림은 손재주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라며 조심스러워하시던 분들도 있었지만, 처음 붓을 들고 색을 올리는 순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색이 스며드는 물감의 움직임에 시선을 빼앗기고, 종

이에 찍힌 무늬를 보고 환하게 웃음을 짓는 모습에서 오래 잊고 있던 ‘설렘’이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작업에 몰입하며 오랜만에 마음속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는 동안엔 잡념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미술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하다 보니 즐겁네요.”

“어릴 적 미술 시간이 떠올라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말들 사이로, 오랫동안 자신을 돌볼 여유 없이 살아온 시간들이 비집고 나오는 듯했습니다. 색연필을 고르는 손끝에서도, 완성된 작품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눈빛에서도 변화가 조용히 피어났습니다.

함께한 시간만큼이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남녀 혼성 그룹이라 처음엔 말수가 적고 어색함이 있었지만, 한 번 웃음이 터지고 서로의 작품을 칭찬하는 시간이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걸음이 느린 어르신에게 다른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보폭을 맞춰 함께 이동하고, 작업이 더딘 분에게 옆자리 어르신이 “여긴 이렇게 하면 돼요”라며 손을 내미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오빠 같아서 더 챙겨드리고 싶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로에게 정서적 의지가 되어가는 모습은 프로그램이 남긴 가장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12회기의 여정이 끝날 무렵, 어르신들은 각자의 색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일에 조금 더 익숙해져 있었고, 함께 만든 시간만큼 관계도 한 층 깊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남은 색채보다 더 진하게 마음에 남은 것은,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며 만들어낸 ‘사람 사이의 온기’였습니다. ‘마음에 그림을 그리다’는 미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어르신들의 내면을 쓰다듬고, 서로에게 조용히 기대어 갈 수 있는 따뜻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작품 하나하나에 깃든 어르신들의 이야기처럼, 이 시간이 마음속에 곱게 남아 또 다른 일상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

〉 자원봉사자

아름다운 당신

개인

(2025.1.1~2025.11.30)

강경미, 강경자, 강광열, 강근호, 강대신, 강만곤, 강민서, 강민수, 강사성, 강성규, 강성숙, 강수미, 강수민, 강수성, 강아린, 강영신, 강예은, 강예은, 강옥순, 강옥주, 강위숙, 강윤호, 강을수, 강점여, 강정숙, 강준석, 고동혁, 고아영, 고영자, 고은호, 고인석, 고재완, 고정환, 고지민, 고현정, 공득진, 공민채, 공영주, 곽민서, 곽용민, 곽원기, 곽준호, 곽지원, 곽태영, 구경애, 구미정, 구본경, 구자태, 구필숙, 국동남, 권명오, 권민아, 권상구, 권순우, 권연정, 권예준, 권예준, 권오정, 권오준, 권오현, 권지혜, 권현숙, 기노풍, 김강영, 김건우, 김경자, 김경희, 김관포, 김국순, 김기동, 김기중, 김기훈, 김나경, 김나님, 김나언, 김낙빈, 김다민, 김다예, 김다혜, 김단아, 김대식, 김대희, 김덕현, 김도현, 김도현, 김동아, 김동원, 김동윤, 김동윤, 김동은, 김동현, 김동현, 김매순, 김맹순, 김명숙, 김명준, 김명진, 김무현, 김문정, 김미연, 김미연, 김미자, 김민서, 김민석, 김민수, 김민아, 김민재, 김민재, 김민주, 김민준, 김민지, 김민혜, 김범근, 김보미, 김봉금, 김상민, 김상준, 김상환, 김서율, 김서진, 김서현, 김석준, 김선겸, 김선옥, 김선재, 김성민, 김성숙, 김성심, 김성은, 김성호, 김세현, 김소라, 김소연, 김소영, 김소영, 김수민, 김수민, 김수영, 김수현, 김숙경, 김순권, 김순덕, 김순명, 김순애, 김순희, 김승민, 김승배, 김승비, 김승현, 김승호, 김승희, 김시은, 김시현, 김여진, 김연주, 김영란, 김영오, 김영욱, 김영일, 김영주, 김영준, 김영현, 김영해, 김영후, 김옥숙, 김옥정, 김옥희, 김용학, 김우성, 김우현, 김우현, 김원주, 김유경, 김유림, 김유범, 김윤서, 김윤수, 김윤우, 김윤정, 김윤정, 김윤주, 김윤채, 김은숙, 김은혜, 김은호, 김은화, 김 의, 김인식, 김인실, 김인원, 김인자, 김장민, 김장수, 김재완, 김재형, 김재호, 김정규, 김정례, 김정아, 김정택, 김종빈, 김종현, 김주천, 김주현, 김준형, 김지영, 김지영, 김지원, 김지윤, 김지호, 김지훈, 김진성, 김진영, 김진우, 김진형, 김찬우, 김창수, 김창식, 김채원, 김추종, 김태서, 김태연, 김태희, 김필현, 김하은, 김한중, 김해옥, 김해온, 김혁채, 김현경, 김현민, 김현숙, 김현준, 김현지, 김현지, 김현화, 김현후, 김형록, 김형준, 김형진, 김혜민, 김효정, 김훈호, 김희자, 나선아, 남궁명지, 남기형, 남디모데, 남수진, 남승현, 남주연, 남지우, 노광희, 노하연, 노현진, 도윤영, 도케네스, 라인업, 류한주, 류호연, 명채은, 문강민, 문경화, 문관호, 문보배, 문석주, 문아현, 문준석, 문지연, 민경미, 민경환, 민병진, 민승홍, 민영달, 민영미, 민재원, 박강주, 박건준, 박경미, 박경희, 박기안, 박동호, 박득수, 박명준, 박문화, 박미소, 박미영, 박민석, 박민수, 박민정, 박복금, 박복선, 박상숙, 박서진, 박성란, 박성순, 박성실, 박성현, 박성희, 박송희, 박수기, 박수빈, 박숙자, 박승민, 박승훈, 박시은, 박예원, 박예은, 박용생, 박용찬, 박운영, 박은미, 박은정, 박일영, 박재범, 박재현, 박정연, 박정오, 박정은, 박정인, 박종민, 박종범, 박종원, 박종윤, 박종인, 박주성, 박주성, 박주영, 박준기, 박준수, 박지섭, 박지수, 박지수, 박지원, 박지혜, 박지혜, 박지혜, 박지호, 박지희, 박진우, 박진우, 박찬규, 박찬식, 박찬혁, 박창일, 박채운, 박춘경, 박태연, 박향미, 박현빈,

박현섭, 박현식, 박현정, 박형근, 박혜린, 박혜원, 박홍기, 반재학, 방민식, 방석호, 방영민, 배광식, 배근호, 배도현, 배지민, 백기명, 백병천, 백승현, 백정연, 범주미, 변국환, 변정훈, 서가은, 서대훈, 서동훈, 서선헤, 서수현, 서순복, 서순옥, 서연호, 서은주, 서임경, 서정완, 서지원, 서지훈, 서진희, 서태미, 서형규, 석지원, 선현서, 성나현, 성두현, 성종현, 성지은, 소병익, 손경식, 손경희, 손미현, 손서연, 손예준, 손 용, 손윤재, 손재민, 손진우, 손채원, 송난희, 송민환, 송승현, 송영우, 송예은, 송우성, 송 이, 송재필, 송재현, 송진숙, 송하경, 송혜원, 송주영, 신다희, 신대섭, 신동현, 신동혁, 신명한, 신석현, 신숙례, 신승윤, 신예원, 신용준, 신윤조, 신윤준, 신인철, 신재환, 신정민, 신지숙, 신찬균, 신재현, 신현정, 신현정, 심경선, 심관숙, 심서희, 심영우, 심의현, 안경섭, 안기철, 안동균, 안상진, 안성의, 안세현, 안영훈, 안재경, 안지원, 안형준, 안희천, 양세열, 양수영, 양승혁, 양지율, 양지하, 양해룡, 양해인, 어경민, 어은희, 어정진, 엄계익, 엄도현, 엄선현, 엄재화, 여준모, 염정원, 오경석, 오광호, 오두성, 오두환, 오민영, 오서영, 오세은, 오수현, 오연수, 오유진, 오정민, 오정석, 오정일, 오채은, 오한진, 오현석, 오호섭, 왕휘래, 우대호, 우선민, 우요한, 우인성, 원상미, 원상혁, 원서연, 원영호, 원진우, 원희진, 유광식, 유광영, 유명희, 유문숙, 유미희, 유민선, 유민주, 유민혁, 유병희, 유복순, 유사름, 유수민, 유영란, 유영선, 유용제, 유인복, 유재덕, 유재현, 유재현, 유종열, 유 준, 유준상, 유지현, 유진혁, 윤남규, 윤명순, 윤범수, 윤병우, 윤성은, 윤세림, 윤수혜자, 윤순녀, 윤순채, 윤승민, 윤영모, 윤영숙, 윤영인, 윤이영, 윤재성, 윤재철, 윤정명, 윤종원, 윤주원, 윤준희, 윤지연, 윤채영, 윤혁준, 이가정, 이경록, 이경수, 이경숙, 이경진, 이경환, 이계옥, 이계화, 이광록, 이광옥, 이규순, 이규열, 이규택, 이규형, 이기현, 이남숙, 이다예, 이대근, 이동신, 이동진, 이동환, 이동훈, 이동훈, 이두현, 이득호, 이명건, 이명희, 이명희, 이미선, 이미애, 이민순, 이병숙, 이부임, 이상고, 이상규, 이상범, 이상익, 이상희, 이새롬, 이서윤, 이서진, 이석재, 이석주, 이선이, 이선재, 이선희, 이성원, 이성준, 이성진, 이세린, 이세현, 이소현, 이소희, 이수빈, 이수아, 이수현, 이순남, 이승규, 이승녕, 이승윤, 이승주, 이승환, 이승희, 이시은, 이신아, 이아람, 이연자, 이영수, 이영순, 이영순, 이예진, 이오순, 이옥규, 이옥란, 이월건, 이월범, 이월혁, 이원희, 이유선, 이유준, 이윤정, 이은경, 이은희, 이은재, 이은희, 이의영, 이의찬, 이인겸, 이인섭, 이인수, 이인숙, 이장우, 이재주, 이재희, 이점숙, 이정경, 이정경, 이정우, 이정윤, 이정현, 이조안, 이종순, 이종태, 이종혁, 이주경, 이주연, 이주영, 이주호, 이준규, 이준범, 이준복, 이준연, 이준우, 이중민, 이지수, 이지윤, 이지하, 이지훈, 이진국, 이진리, 이진서, 이찬빈, 이채안, 이채은, 이철순, 이초희, 이치훈, 이태윤, 이하늘, 이해평, 이현숙, 이현아, 이현옥, 이현우, 이형주, 이해숙, 이해진, 이효숙, 이효중, 임경민, 임금순, 임남희, 임동현, 임말석, 임명자, 임문화, 임상민, 임성택, 임수경, 임완택, 임우섭, 임윤하, 임은영, 임은진, 임재경, 임재윤, 임정란, 임주연, 임준서,

〉 자원봉사자

아름다운 당신

〉 후원자

임준수, 임철호, 임청지, 임하민, 임혜주, 임호선, 임화연, 장다현, 장승혁, 장영옥, 장영현, 장예준, 장우현, 장윤성, 장재호, 장재훈, 장준호, 장춘호, 장혜경, 전동현, 전미옥, 전민정, 전상준, 전석배, 전성우, 전수연, 전승준, 전예희, 전인성, 전재인, 전진숙, 전진협, 전형수, 전혜원, 정가비, 정경희, 정규원, 정규현, 정기현, 정다교, 정다정, 정다훈, 정명자, 정미자, 정미향, 정민, 정민경, 정민수, 정민준, 정병진, 정보람, 정서연, 정서연, 정선영, 정성모, 정성혜, 정신조, 정양진, 정연란, 정연우, 정영희, 정용배, 정용식, 정원종, 정윤선, 정윤호, 정재성, 정재영, 정재우, 정재훈, 정정숙, 정주영, 정지민, 정지우, 정진숙, 정현정, 정희자, 제갈은, 조기현, 조경미, 조고은, 조교임, 조규용, 조도윤, 조동숙, 조민규, 조민제, 조민준, 조병순, 조복연, 조성윤, 조성은, 조수빈, 조수아, 조영준, 조영준, 조용민, 조윤소, 조윤원, 조은선, 조은주, 조은진, 조재훈, 조정수, 조진철, 조진호, 조현도, 조현아, 조현우, 조현우, 조홍대, 주석환, 주정혜, 주정화, 지상준, 지세환, 지영은, 지혜자, 차선판, 채명순, 채수봉, 채원중, 채현숙, 천종국, 최경화, 최금례, 최기희, 최동원, 최명숙, 최문환, 최민아, 최보민, 최상완, 최서윤, 최석현, 최선봉, 최선영, 최성빈, 최성우, 최성원, 최성진, 최소윤, 최순안, 최순자, 최승균, 최승희, 최시은, 최아정, 최영순, 최영애, 최영은, 최영진, 최예지, 최예찬, 최옥란, 최용현, 최용현, 최원철, 최유경, 최은령, 최은진, 최인규, 최인선, 최인철, 최종란, 최자연, 최진재, 최진호, 최철욱, 최하은, 최해영, 최현동, 최호륜, 최효빈, 편채경, 피현진, 하선민, 하성옥, 하성훈, 하재익, 하정훈, 하지선, 한경숙, 한만주, 한선미, 한수정, 한영숙, 한원근, 한원진, 한재원, 한정태, 한채빈, 한태인, 한혜진, 한희수, 허영숙, 허원, 허윤희, 현은희, 현지연, 흥경선, 흥기우, 흥기인, 흥기정, 흥길선, 흥명주, 흥성규, 흥영기, 흥영희, 흥유정, 흥정희, 흥지민, 흥태우, 흥현수, 흥규리, 흥기연, 흥복자, 흥선백, 흥성희, 흥영자, 흥영진, 흥유정, 흥정석, 흥정순, 흥지원, 흥충국, dandarganchimeg, DARSONOELIS, GANBATTSENGEL, kimistominaluizavero, koaidensungmin

단체

(2025.1.1~2025.11.30)

더불어봉사단, 아름다운어울림봉사단, 카카오힐스케어, 한국지역난방공사, 한미글로벌, HD현대건설기계, KB국민은행경기2PG, SPC삼립, 성남직능플랫폼, 백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HD현대사이트솔루션, 하나은행

Thank you

개인

(2025.1.1~2025.11.30)

단체

(2025.1.1~2025.11.30)

강민호, 강연선, 강정숙, 강천순, 고창숙, 구혜자, 권상구, 권소진, 권중배, 김경선, 김경현, 김광렬, 김근석, 김나연, 김덕준, 김동욱, 김동준, 김동진, 김명환, 김명희, 김민희, 김방자, 김보나, 김보성, 김서현, 김수영, 김순자, 김승희, 김연권, 김연호, 김영순, 김영주, 김옥경, 김옥자, 김유나, 김재웅, 김정남, 김정숙, 김주천, 김진희, 김창용, 김태선, 김태철, 김학현, 김한솔, 김현숙, 김현숙, 김형규, 김혜숙, 김혜숙, 김호기, 김홍현, 남기찬, 남석현, 남정희, 노신례, 두현호, 문병주, 문정희, 문창현, 박가령, 박경섭, 박귀자, 박동연, 박미선, 박복남, 박상이, 박상진, 박영순, 박재만, 박현정, 박학숙, 반경희, 방성현, 배근호, 배유진, 석영희, 성기정, 성은희, 손미현, 손우정, 송관호, 송미옥, 송옥순, 송용순, 송은하, 송재혁, 송현숙, 신미우, 신수범, 신연호, 신찬균, 신현정, 심명희, 심재권, 안귀열, 안무식, 안종범, 안혜신, 양명숙, 양승배, 양은혜, 오송희, 오순자, 오춘희, 용석훈, 원향연, 위정은, 유남욱, 유동근, 유선숙, 유수근, 유신종, 유영숙, 유정주, 윤순녀, 윤연영, 윤정희, 윤태호, 이계화, 이길순, 이남순, 이다교, 이미애, 이병권, 이상민, 이세훈, 이수정, 이순주, 이순호, 이승희, 이연옥, 이연화, 이영선, 이영숙, 이영숙, 이웅열, 이인수, 이자영, 이정옥, 이정희, 이지현, 이진숙, 이춘화, 이필화, 이현구, 이해숙, 이화재, 이효경, 임규현, 임성태, 임옥재, 임청지, 임태연, 장미현, 장민희, 장석영, 장여진, 장정은, 장진숙, 전미생, 전미옥, 전민하, 전진숙, 전현진, 정가비, 정문숙, 정상원, 정상효, 정재호, 정주언, 정학자, 조동임, 조말순, 조영숙, 조영희, 조용국, 조찬휘, 조현주, 조화자, 지준정, 진범, 진용태, 차경미, 차든솔, 차승준, 최경미, 최경자, 최상, 최성준, 최순자, 최양은, 최영숙, 최윤선, 최윤아, 최종원, 최호진, 편창옥, 하서영, 한경숙, 한정혜, 한현임, 하승연, 하인숙, 흥영숙, 흥재학, 흥형식, 황선이, 황성미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주)아주르852, (주)넥스팜코리아, (주)대현이엔씨, (주)드림디포 판교, (주)쓰리케이플레이, (주)엘제이월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우건축, (주)큐니걸스, KT&G복지재단,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기사랑의열매,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농협은행 (주)성남시지부, 니트플러스,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포교부(전법성님), 디비자동차보험손해사정, 문정노인종합복지관, 바자회, 본죽&비빔밥 cafe(판교역점), 사단법인 본사랑,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 사회복지법인열매나눔, 삼송뱅킹 광명KTX역사점, 새아침연합내과의원, 서초지역자활센터, 소리조경, 수협은행판교역지점, 씨제이프레시웨이주식회사,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 에이치디현대사이트솔루션주식회사, 우리축주, 유스페이스 스크린골프연습장, 이지보청기서현점, 재단법인 에이치디현대일파센트나눔재단, 재아(주), 제생병원어린이집, 주식회사 멀티트레이드, 주식회사 보뜨래푸드,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 준희어페럴, 지에프엔, 지티에스글로벌 벨롭, 크리스피크림도넛 모란역점, 링콩백화점주식회사, 태평1복지회관, 티케이 정형외과, 퍼스트유, 하나금융나눔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남부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판교지사, 한미글로벌, 한성엘앤씨 주식회사, 한우판매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황송노인종합복지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바자회, 판교노인종합복지관 휴게공간

›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아름다운 당신

판교노인종합복지관

후원금 사용내역
(2025.1.1~11.30)

수입	
지정후원금	153,132,712원
비지정후원금	82,029,000원
합계	235,161,712원

지출	
지정후원금	95,768,412원
비지정후원금	90,175,712원
합계	185,944,124원

후원품 사용내역
(2025.1.1~11.30)

수입	지출
1,979,547,041원 상당	1,871,830,541원 상당

* 전년도 이월 후원품 지출 포함

자원봉사

남을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첫 걸음!!!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2017년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센터로 등록되어
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동절차



1) 접수

내방, 전화, 홈페이지



2) 상담

전화 및 방문상담



3) 교육

봉사자교육 및
기관안내



4) 진행

자원봉사활동



5) 실적 확인

VMS 인증관리

신청문의

방문
월~금 / 9시~17시

홈페이지
www.pangyonoin.or.kr

자원봉사포털
1365 (www.1365.go.kr)
VMS (www.vms.or.kr)

전화
031-620-2810

후원

나눔으로 인한 큰 기쁨을 판교노인종합복지관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납부방식

CMS
매월 약정일 통장에서 자동 인출
CMS 신청서 작성

계좌이체
복지관 후원계좌로 입금
국민 093601-01-014737

직접후원
후원금 및 물품 전달
문의: 031-620-2810

후원에 참여하시면

- 후원하시는 모든 후원금 및 후원물품은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자원봉사자·후원자 나들이 초대
- 송년의 밤 초대